자기가 한 것대로 짊어지고 나온 데서 들고 나는 것에 속지 말라

☞ 17면에서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그들도 죽겠으면 그 집의 방에 죽들 와서 앉았겠습니까? '날 좀 아픈 것 좀 낫게 해 줄 수 없느냐?' 해서 어디로 갈 데는 없고 인연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자식이라는, 손주라는 인연이, 의식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와 있을 수밖에는 없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서 아무리 애를 쓰려고 그래도 아버지가 해 놓은 게 없고, 아버지가 지금 시쳇말로 하면 기술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래서 도저히 그 아들을 살릴 도리가 없어. 그래서 만약에 그분네들이 열 분이라 할지라도, 백 분이라 할지라도, 한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한테 항상 가르치죠. 주인공에 모든 것을 '주인공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거기다 맡겨라. 이렇게 되면 이 물그릇에다가 물 열 방울을 갖다가 넣으니까 이게 (법상 위의 물컵을 들어 보이시면서) 두드러집디까? 그냥 한 컵의 물입디까? 이걸 대답해 보십시오. 한 컵의 물이죠. 그래서 방 안에 있던 그 조상님들을 내 물 한 컵에다가 다 넣으니까 한 컵의 물이 되더라 이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한 컵의 물이 되니까 그 방 안은 깨끗해지고 그 불쌍한 그분은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강원도 어디에서 살고 있죠.

허나 사람이 살고 죽고 그걸 떠나서 인간으로서 은혜를 알고 진정한 사랑을 안다면, 조상과 부처와 둘이 아니라는 그 뜻을 알게 됩니다. 부처도 조상이요, 조상도 부처다 이런 소리가 있죠. 그건 뭐냐 하면은 부처님의 뜻은 모두가 자식이요, 모두가 자기요, 모두가 자기 부모니깐 자기 물 한 컵에다가 다 집어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이 물을 다 준다 하더라도 줄지 않는 그러한 묘법의 법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속을 뚫어지게 알 수 있고 그런 것을 체험을 하고 알 수 있어야지, 자기가 체험을 안 하고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승화시키지 못하고 자기가 나투지 못하고 둘 아님을 모르고 이러한 문제를 경험해 보지 못한다면 이러한 이치는 까맣게 모릅니다.

우리 신도 한 사람도 허리가 아프고 삐뚤어졌는데 궁둥이도 그냥 이렇게 일그러져 가지고는 아프다고 별짓 다 했죠. 그래서 누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 보라고 그러길래 그랬대요. 간다고요.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랬습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참, 입산을 해서 행자 노릇을 하고 중노릇을 하다 군대를 갔다가 그만 속퇴를 했다 하더라도 네가 그냥 갈 수는 없지 않느냐? 너는 지금 병이 아니야. 너를 테스트하는 그 기간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깥으로 그렇게 떠돌면 언제 너를 발견하겠느냐!" 그러곤 했더니만 "그래도 좀 갔다 와야겠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러고 갔죠. "깨끗하고 하나도 이상이 없답니다." 이러거든. 그런데 그게 병입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법은 그렇게 묘하고 광대무변해. 여러분은 아프다고 그것이 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공부하는 과정의 테스트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겁도 나지 않아. 하나도 겁나는 게 없어.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철저하게 믿기 때문에 그까짓 것 겁날 것도 없고 또 진짜 죽는다 하더라도 겁날 게 없어, 진짜 죽는다 하더라도. 오른이 망그러져서 오른을 다시 새 걸로 바꿔다 놓는 거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걱정이 되느냐 이거야. 여기 어떠한 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금부터라도, 아까까지는 생각을 그렇게 했었어도 한생각이 중요해, 한생각.

한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생각이 자기를 구덩이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묘법이 스스로 돼 있다 이거야. 여러분이 여러분을 창살 없는 감옥에다가 옹쳐매 놓고 있고, 병자로 옹쳐매 놓고 있는 거지 누가 병을 갖다 준 겁니까, 뺏어 갑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달린 거라. 과거 자기가 한 대로 문서를 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가난과 병고와 그 모진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한생각에 그 고통과 그 문서를, 종 문서를 한꺼번에 태워 버릴 수 있어.

여러분이 여러분을 창살 없는 감옥에다 옹쳐매 놓고 있고
병자로 옹쳐매 놓고 있는 거지, 누가 병을 갖다 준 겁니까?
여러분 한생각에 그 고통과 종 문서를 한꺼번에 태워 버릴 수 있습니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실도 없다 이랬죠? 왜 그런가? 한 찰나의 살림살이기 때문이다. 여러분한테 항상 말하죠. 우리의 살림살이는 한 찰나요, 한 인생 살아나가는 것은 한 철이라고. 여러분이 한 찰나의 살림살이를 지금 하고 가는 겁니다. 요리 변덕 조리 변덕, 변덕쟁이거든, 변덕쟁이. 도깨비장난, 귀신장난감 이렇다고. 그러니까 그걸 말로 하려니까 그렇지 여러분은 변동이 무쌍해. 그렇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공(空)에 들어서 가만히 있다면 그건 목석인 거야. 또 너무 말을 하고 너무 아는 척을 해서 한데 떨어뜨린다면 그건 귀신이야.

그러니까 모든 것은 정상적으로 그냥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내는 거야, 그냥. 거기도 걸리지 마라. 생각이 자꾸 나걸랑은 그대로 그냥 주인공에서 나오는 거니까 버려두라고. 버려두는 거지. 왜? 자기가 이렇다 저렇다 할 자리가 아니야. 아무것도 붙지 않는 자리라고. 그런데 여기서, 괜히 고(苦)덩어리 속에서 그 의식이 들고 나면서 괴로움을 주고 또 즐거움을 주고 이러니까 즐거웁더라도 빙긋이 웃고 말고, 괴로웁더라도 빙긋이 웃고 말고…, 거기서밖에 해결 못 하니까. 이열치열, '네 속에서 나온 거는 네 속에서 해결해야지 딴 속에서 해결 못 한다. 나는 거기에 속을 필요가 없어. 네가 무체(無體)로서, 즉 말하자면 큰 부처로 보이더라도 난 거기에 속지 않아.' 이렇게 속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 전자의 종 문서에 의해서 자기가 한 것대로 짊어지고 나온 데서 들고 나는 것에 속지 마시라 이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좋은 소리가 들린다 하더라도 거기에 속지 말고, 말하자면 세 가지를 똑바로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는, 나도 마찬가집니다. 말, 뜻, 행 이 세 가지가 동일하게 진실한지를 알게 되면 그냥 따르라고 그랬지, 믿으라고 그런 게 아니야. 따르라 이거야. 왜 따르라고 그랬느냐. 그건 당신네들 주인공 안에 나와 더불어 같이 모두 일체 만물만생이 다 같이 한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지.

또 한 가지는 전에 어느 분이 날더러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스님, 스님이 그렇게 잘 아신다면 왜 지금 노사분규나 또 학생들이 이렇게 벌낫 휘두르듯 하고 미친 듯이 이렇게 날뛰게끔 하고 나라가 위태하게 합니까?" 이러거든. 모르는 그 사람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부처님 법은 이러이러하니까 이렇다 이럴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말을 했죠. 나쁜 거 좋은 거 이런 거를 모조리 체로 쳐서 골라 내려면 모든 국민들이 나쁜 거 좋은 거를 다 알아야 그때는 스스로 체에 쳐져. 그러니 자기가 나쁘면은 국민들을 우롱하게 되고 국민들에게 나쁘게 된다면은 스스로 체에 쳐져서 그냥 밀려서 저 땅으로 내버려지게 돼 있고, 알쭌하게 알맹이, 요 가루는 다 이렇게 체로 쳐지고 아, 그 무거리는 다시 찧어서 먹게끔 또 된다 이거야.

이것이 바로, 한 솥에 죽을 쑤어서 죽이 펄펄 끓을 때에, 부글 부글 부글 끓어 오를 때에 그 방울방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처럼 모두 이 세상 돌아가는 게 그러한 거라. 이 나라에선 이렇게 나오고 저 나라에서 저렇게 나오고, 한 나라에서도 내가 잘나고 내가 못나고 이렇게 모두 팥죽 솥에서 팥죽 끓어 오르듯이 오르는 겁니다. 그럴 때에 만약에 팥죽 쑤는 사람, 주걱을 든 사람이 있다면 그저 그냥 불룩하게 올라오는 건 치고, 안 올라오는 건 올리고, 흥, 그거 주걱이 다 하는 거죠, 뭐. 그래서 그 주걱은 오르는 건 때리고 안 올라오는 건 오르게 그저 평등하게 하면서, 체로 거르듯이 그냥 주걱으로 휘 휘 저어서 맛있게 끓여서 다 먹을 수 있게끔 해 놓을 때까지는, 바람이 어디로 불든지 그것이 상관이 없다 이 소립니다. 그거는 오히려 바람을 불게 해야 체로 거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정말이지 이 권도법(權道法)이란, 대권도법(大權道法)이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참 광대무변하고 묘하고 그렇게 귀중하고 보배인 것입니다. 누구는, 부처님이 왜 자기가 태어난 데를 그렇게 망가뜨려 놓고 그랬을까? 예전에도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마는 그거는 망하게 만든 게 아닙니다. 그 나라가 만약에 밥 짓는 솥이라면 그 밥을 짓는 사람들이 솥을 망가뜨린 거지, 부처님이 그 솥을 망가뜨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솥을 망가뜨려 봐야 '밥 지을 때 참 필요한 게 솥이구나.' 하는 걸 알게 만들기 위한 그것도 길잡이의 한 방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의 문제도 여러분이 이 주관만 튼튼히 세워서 진실히 맡겨 나간다면 다 해결이 되어진다고 봅니다.

주인공이라 하는 것은 찰나찰나 돌아가기 때문에 전체 돌아가는 거를 주인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이 없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근본이 당신이지. 응? 이 세상에 아무리 위대하다, 우주의 어떠한 것이 위대하다고 할지라도 아주 조그맣고 하치못한 여러분의 마음의 근본이 제일 귀중하고 보배인 것이고 높습니다. 그 조그마한 보이지도 않는 그것이 바로 우주를 삼킬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달세계나, 은하계나, 어떠한 태양계도 바로 둘이 아닌 까닭에 지금 현재에 양 개체가 합류화된다면 전자와 원자, 양자가 같이 혼합이 돼서 중성자가 된다면, 그 위력이 우주를 집어삼키고도 남음이 있는 위력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승화시키고, 체험하고 이래서 둘이 아님을 깨닫고, 둘이 아니게 나툼을 깨닫고 그렇게 된다면, 둘이 아니게 나툼을 깨닫는다면….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육십이견(六十二見)도 그렇지만 삼십이응신(三十二應身)이 충만하다 하는 것도, 그건 숫자가 아니라 과거심(過去心) 현재심(現在心) 미래심(未來心), 삼세심(三世心)을, 삼세 대천세계(大千世界)를 넘나들면서 자유권을 갖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다면 지금 태양계나 어떠한 은하계도 그 중성자의 뜻이라면 은하계의 법왕이 내가 될 수 있고 태양계의 법왕이 내가 될 수 있어. 그래서 그 자료를 마음대로 가지고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구름과 안개도 전부 내 통신기가 되고, 바로 내 신장이 되고, 내 제자가 되고, 내가 되고 이렇게 해서 모든 우주 법계의 모든 것을 평등하게 해 나갈 수 있는가 하면, 평등하게 하려니깐 아까도 주걱이 하듯 그 주걱으로써 모든 일들을 해 나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바람도 일으키고, 바람을 일으켜야만이 체로 쳐지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국난을 면하게 하고 안타까운 걸 면하게 하고 또는 우리 국내의 재정이나 또는 국내에 어떠한 문제가 닥쳐오는 것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톡톡한 자기의 보배를 가지고 있고 갖추어 가지고 있는 질량을 마음대로 사용해서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것이니까 닥치는 대로, 자기 소용 닿는 대로, 용도대로 전기도 많이 쓰려면 많이 쓰고 적게 쓰려면 적게 쓰는 용도가 여러분 앞에 닥쳐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도대로 쓰시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전력을 보지 못하고 전깃줄만 보고 전기 들어오는 것만 본다면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전력이 있다는 건 믿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전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 불이 들어오고 전깃줄이 가설이 돼 있다는 걸 아셔야죠. 가설이 된 거, '아이, 저거 뭐, 줄만 있고 저렇게 하는데 전력이 있긴 뭐가 있어?' 이렇게 믿지 않으신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생활에서 연결이 되고, 생활에서 아주 맞돌아가고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도 맞돌아가고 있고 천당 지옥이 맞돌아가고 있고, 살고 죽고가 맞돌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맞돌아가는데, 맞돌아가기 때문에 귀신이고 선신이 따로 없고, 중생 부처가 따로 없고, 천당 지옥이 따로 없고, 여자 남자가 따로 없고, 동서남북이 따로 없고 모두가 그러한 도리를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앞으로 우리들이 겪어 온 그 하찮은 오백 년 역사를 또다시 겪지 않고도 우리는 좀 더 생동감 있고 좀 더 위력 있고, 좀 더 승화시켜서 앞으로의 역사를 가져오게끔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걸로써 마치겠습니다.

※위 법문은 1989년 4월 16일 정기법회 법문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 주요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동시 판매중!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대행 스님 법문의 정수가 담긴
2019년 최고의 결정판!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 초창기 법문의
핵심을 모아 한 권으로 엮은 책

삶의 지침이 될 지혜의 가르침들이
내 마음에 꽃이 되어 피어나다!

한마음선원 출판부 엮음 | 양장본 | 총 384면 | 책값 18,000원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0 무진향 031)470-3118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